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305 | DECEMBER 2022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2년 12월호 / 통권 305호

발행일 2022년 12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2©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305 | DECEMBER 2022

렌즈로 보는 세상	4
대림시기 신앙 생활표	6
함께 읽는 성경	8 요한의 둘째 서간
교회의 가르침	12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16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20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24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28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신앙과 삶	32 자녀의 의무?
듣다 읽다 보다	34 고전 음악을 듣다
	40 함께 읽는 세계 문학
	46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50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6 정석의 이 도시
	64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직장사목팀 소식	70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THE COVER

순교자 유대철 베드로

그린이: 정도운 엘리야(<http://artist-jdw.com>)



파리 생 실피스 성당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간구해봅니다.

/
윤정민 마틸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전례력 '다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해인 전례력 '가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시작합니다. 즉, 대림 시기로 시작합니다. 이 대림 시기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전 4주간을 말하며, 또한 이 시기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들은 구세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겸손한 참회의 정신과 회개로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가치 있고 풍요로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기쁨과 희망을 품고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각 교구의 교구장들은 새로운 한 해의 사목 교서를 발표합니다.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님도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2023년도 사목 교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목 교서에서 교구장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사회에 대처하고, 더 나아가 참다운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해가던 우리의 모습을 떨치고 일어서야 함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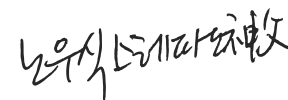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2023년도에는 **‘첫째, 신앙생활의 근원인 미사성제에서 영적 힘을 길어내자고** 하십니다. 미사 전례는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場)이자 시간이므로, 각자의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난관과 도전들 앞에서 때로는 힘이 빠지고 지치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 힘든 상황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을 그대로 안고 성당으로 달려가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의 손길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사성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되어, 물질적인 가짜 행복이 판치고 여러 형태의 폭력이 일어나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심어나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사성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기쁨을 맞본 이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선포와 그 실천에 불려온 사람들입니다. 둘째 실천 방안으로는 우리 안에 **다양한 신심을 새롭게 불 지피자고**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신앙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심과 신심 행위, 그리고 신심 운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시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신자들의 영성 생활 활성화에 여러 신심 활동이 기여해 왔음을 인정하고, 언제나 장려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체조배나 성시간, 혹은 성체거동 등의 **성체 신심**, 첫토요일 미사와 로사리오 기도 등의 **성모 신심**, 순교자 현양과 성지 순례 등의 **순교자 신심**, 성령 기도회나 성령 쇄신 운동 등의 **성령 신심** 등의 다양한 신심 활동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된 신앙생활에 새롭게 불을 지피자고 하십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미사성제를 통해 얻은 영적인 힘과 새롭게 불붙은 신심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더 깊어진 그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 복음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끝으로, 미리 성탄과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기쁜 성탄과 즐거운 새해 맞이하십시오!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대림시기 신앙 생활표

대림 시기를 준비하는 신자를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양심 성찰

하느님에 대해	◦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고 있지 않은가? ◦ 주일 미사와 의무 축일 미사에 참례하고 있는가? ◦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가? ◦ 하느님과 성모님, 그리고 성인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는가? ◦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길 부끄러워했는가? ◦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하느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 하느님께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강하게 청한 적은 없는가?
이웃에 대해	◦ 이웃을 용서하거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운 적이 있는가? ◦ 약한 이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물건을 빼앗은 적은 없는가? ◦ 이웃을 질투하여 편협하게 행동했는가? ◦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았는가? ◦ 다른 이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부추긴 적은 없는가? ◦ 복음의 가르침대로 배우자와 가정에 충실한가? ◦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가? ◦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 새 생명을 거부하거나 소멸시키는 일에 가담한 적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	◦ 세속적이고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이 즐거움에 지나치게 빠져 있지는 않은가? ◦ 육체적 건강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행동하는가? ◦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가? ◦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는가? ◦ 사랑이 담긴 마음과 생각, 행동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가? ◦ 원한을 품고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는가? ◦ 온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대림 1주	대림 2주	대림 3주	대림 4주
☐ 11/27(주일) 하느님께 감사하며 ◦ 영광의 신비 ◦ 루카복음 1장	☐ 12/4(주일)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 영광의 신비 ◦ 루카복음 8장	☐ 12/11(주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 영광의 신비 ◦ 루카복음 15장	☐ 12/18(주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 영광의 신비 ◦ 루카복음 22장
☐ 11/28(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 환희의 신비 ◦ 루카복음 2장	☐ 12/5(월) 교황님을 위하여 ◦ 환희의 신비 ◦ 루카복음 9장	☐ 12/12(월) 성요셉의 도움을 청하며 ◦ 환희의 신비 ◦ 루카복음 16장	☐ 12/19(월)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 환희의 신비 ◦ 루카복음 23장
☐ 11/29(화) 예수 성심께 자비를 청하며 ◦ 고통의 신비 ◦ 루카복음 3장	☐ 12/6(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 고통의 신비 ◦ 루카복음 10장	☐ 12/13(화) 병자들을 위하여 ◦ 고통의 신비 ◦ 루카복음 17장	☐ 12/20(화) 비신자들을 위하여 ◦ 고통의 신비 ◦ 루카복음 24장
☐ 11/30(수)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 영광의 신비 ◦ 루카복음 4장	☐ 12/7(수) 냉담자들의 회두를 위하여 ◦ 영광의 신비 ◦ 루카복음 11장	☐ 12/14(수) 우리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 영광의 신비 ◦ 루카복음 18장	☐ 12/21(수)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 영광의 신비 ◦ 마태오복음 1~2장
☐ 12/1(목) 부모를 위하여 ◦ 빛의 신비 ◦ 루카복음 5장	☐ 12/8(목) 부부를 위하여 ◦ 빛의 신비 ◦ 루카복음 12장	☐ 12/15(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 빛의 신비 ◦ 루카복음 19장	☐ 12/22(목) 하느님께 감사하며 ◦ 빛의 신비 ◦ 요한복음 1장 1~18절
☐ 12/2(금)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 고통의 신비 ◦ 루카복음 6장	☐ 12/9(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 고통의 신비 ◦ 루카복음 13장	☐ 12/16(금) 교회를 위하여 ◦ 고통의 신비 ◦ 루카복음 20장	☐ 12/23(금)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 고통의 신비 ◦ 이사야서 7장 10~14절
☐ 12/3(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 환희의 신비 ◦ 루카복음 7장	☐ 12/10(토) 사제들을 위하여 ◦ 환희의 신비 ◦ 루카복음 14장	☐ 12/17(토) 자녀를 위하여 ◦ 환희의 신비 ◦ 루카복음 21장	☐ 12/24(토)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 환희의 신비 ◦ 이사야서 9장 1~16절

12/25(주일)
성탄 본미사

요한의 둘째 서간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장



요한의 둘째 서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내용이 가장 짧으며, 총 1장,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둘째 서간은 같은 저자의 이름을 쓰고 있는 요한의 첫째 편지, 요한의 셋째 편지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랫동안 이 서간의 저자가 사도 요한으로 추측했습니다. 서간중에서 요한은 자신을 원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요한이 그 당시 나이든 연장자였고, 교회의 공적인 직무를 맡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서간이 무척 짧기 때문에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첫째 서간을 작성한 뒤에 이어서 바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80년에서 95년 사이에 에페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수신인

“원로인 나는 선택받은 귀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요한 1,1-2) 요한은 이 서간에서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인사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부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자녀는 교회의 신자들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글 그대로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어떤 부인일수도 있고, 부인의 자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내용

사도들의 글이 지금처럼 한데 묶여 성경으로 완성되기전에 초대교회 시기에는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교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교리는 보통 교회들 사이를 여행하는 수많은 교부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중에는 사도의 가르침과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신약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서간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진정한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염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복음에 굳건하고 충실하게 남은 교회 신자들에 대한 기쁨도 표현하고 있습니다.(요한 2서 1,4 참조)

초대교회에서 성행한 이단들은 가현설(假現說)로 신자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를 도우시티즘(Docetism)이라하는데, 그리스어로 ‘보이다’라는 뜻인 ‘도케오’(δοκέω)가 어원으로, ‘예수님의 몸은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교리입니다. 즉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참된 피와 육의 사람이 아니라면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교리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은 것은 환상일 뿐이며, 그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한이 활동한 교회에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성육신(肉化) 사상(요한 1,14)을 통해 가현설을 반박했습니다.

복음서와 서간의 저자들은 물론, 교부와 신학자들에게도 가현설은 단죄되었는데, 그 실례로 마태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을 언급하고 있으며, 요한의 둘째 편지(요한 2서)에서는 예수가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말고 함께 어울리지도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자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뵈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

요한의 첫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 ① 요한의 둘째 서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 ② 요한의 둘째 서간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 ③ 나는 그대들을 ()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 ④ 내가 그대에게 써 보내는 것은 무슨 ()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 온 ()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 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무엇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 ⑥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입니다.
- ⑦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누구를 모시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 ⑧ 저자는 이단자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 ⑨ 요한의 둘째 서간을 짧게 마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⑩ ()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를 전합니다.

아래의 말씀들을 한주에 하나씩 외워봅시다

1주간

나는 그대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대들을 사랑합니다(1,1).

2주간

내가 그대에게 써 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 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1,5).

3주간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1,7).

4주간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1,9).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세례성사, 생명의 성사

왕태연 요셉 신부_의정부교구 토평동 성당

가톨릭교회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례성사”입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견진성사, 성체성사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입문(入門) 성사**라고 합니다.

세례성사를 표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탄생을 자기 마음대로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성사에 있어서의 “다시 태어남”은 모태(母胎)를 열고 나오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례성사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생’과 반대되는 ‘죽음’을 먼저 떠올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이 저질렀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로마 5,12) 하지만, 만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고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고 인간은 결국 죄의 지배하에 놓이는 운명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믿는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다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성사의 가장 큰 은총은 이처럼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이 예수 그리스



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어 ‘새롭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움’을 드러내는 의미로 우리가 받는 세례성사에서는 ‘물’을 사용합니다. ‘세례를 베풀다(Baptize)’는 말의 어원도 그리스어의 ‘βαπτίζω’ 곧, “물에 담그다.” 또는 “잠기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물”은 정결예식에 사용되는 것으로 더러워지고 부정해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레위기 11장, 15장) 또한, 창세기 7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 죄에 물든 인간세상을 쓸어버리실 때에 큰 물, 즉 홍수로서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집트 병사들은 그 바닷물로 삼켜버리심으로써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는 ‘해방’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셨습니다.(탈출기 14장)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르단 강을 건넌으로써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는 곧 하느님 백성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여호수아 1장)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세례에 관한 구약의 예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에 이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225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새로운 생명의 성

사들인 세례와 성체성사의 예형입니다. 그 때부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깨끗하게 하였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격을 허락하셨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성사 때 이마에 부어지는 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힌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자칫 현세에서 곧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세례성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조차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위한 세례성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교리서 1260항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인간의 궁극 소명도 참으로 하나 곧 신적인 소명이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느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파스카 신비에 동참할 가능성을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른다고 해도,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비는 세례성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의롭고 선한 이들과 회개한 이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세례성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세례 받은 신자들은 더 많은 이들이 세례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욱 열심히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은총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룩하고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녀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회와 더불어 ‘신앙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중요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이란, 부모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얻은 새 생명을 낳고, 키우며, 사랑해 주어야 하는 신성한 의무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례성사의 은총을 알고 있고, 그 은총 속에 머물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될 수 있도록 이미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은 그 은총을 전하기 위해 더욱 분주히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가톨릭 직장인」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②

인간의 존엄(尊嚴)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존엄’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수긍할만한 우리말 풀이일 것입니다. 그 ‘존엄’의 용례로 어느 철학자의 사색을 담은 글도 소개합니다. 오늘 ‘존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사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존경의 염을 가질 수 있고, 존엄과 품위를 지닐 수 있다.《안병욱, 사색인의 향연》”

이 철학자는 인간 존엄의 근거를 ‘인격’에서 찾습니다. 이를 ‘인간학의 관점’에서 인간 존엄의 근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격’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5」『심리』 개인의 **지적(知的), 정적(情的), 의지적** 특징을 포괄하는 정신적 특성.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유일한 지속적 자아로 생각하는 작용이다.

「6」『종교 일반』 **신에 대하여 인간이 갖춘 품격**을 이르는 말.

「7」『철학』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개인. 자기 결정적이고 자율적 의지를 가지며, 그 자신이 **목적 자체가 되는 개인**을 이른다.

「5」와 「7」의 인용으로 우리는 인간 존엄의 인간학적 또는 철학적 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이성 및 지성**’의 존재입니다. 이 이성과 지성으로 인간은 ‘진리’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양심**’의 존재이다. 이 양심으로 인간은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자유 의지**’의 존재이다. 이 자유 의지로 인간은 선을 선택하고 악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 이성과 지성, 양심, 자유 의지는 ‘...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역량들이 충분히 또는 완전히 발휘될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 우리는 그 역량들을 말 그대로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지성의 역량을 아무리 최상으로 발휘했더라도 ‘진리’ 그 자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한 ‘현상’을 놓고, 여러 사람이 제각각 다른 해석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양심의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아무리 최상으로 식별하려 했더라도 그 식별이 말 그대로 반드시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선과 악’을 ‘쉽게’ 식별하지 못할 때가 발생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 의지로 선을 선택하고 악을 배척했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최상으로 ‘도덕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해 확신하지 못하거나 곧바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유 의지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만큼 확고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 양심, 자유 의지’의 그 역량들을 힘써 갖고 닦는 그 만큼 우리는 “사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존경의 염을 가질 수 있고, 존엄과 품위를 지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인격’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앞의 「표준국어대사전」 인용, “「6」『종교 일반』 신에 대하여 인간이 갖춘 품격을 이르는 말”에서 우리는 ‘신학의 관점’에서 인간 존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첫째, 인간은 ‘하느님을 닮게(image) 그분과 비슷하게(likeness)’ 창조되었기에 존엄합니다. ‘하느님의 모상(模像)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간’이 되었기에 존엄합니다.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를 인간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인간은 ‘성령의 궁전’이 되었기에 존엄합니다. 인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은 다른 근거로 ‘인간의 존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인간 존엄의 근거로 ‘불성’을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 나름의 근거로 ‘인간의 존엄’을 믿고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 존엄의 특성 또는 근거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이 지닌 ‘개방의 역량’과 ‘초월의 역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타인, 공동체, 만물에 개방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관계’를 떠나서 ‘삶’을 꾸려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궁극의 무엇(초월적 존재, 절대 진리, 절대 선, 절대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철학도 종교도 이 절대적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모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로 ‘신학(신앙)’은 ‘철학(이성)’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학은 ‘과학(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성과 지성의 역량 발휘 활동)’과도, 또 다른 종교들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 역시 ‘인간 존엄’

의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대신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앞에 소개한 인간학(철학)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로 ‘인간의 존엄’을 ‘진리’라 믿고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하느님께서 그 ‘이성, 양심, 자유 의지’의 역량을 인간에 무상(無償)으로 부여(附與)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를 두고, 인간의 존엄은 ‘신앙의 빛으로 조명된 이성’으로 파악하게 된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천부(天賦: 하늘이 주었다는 뜻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님)의 재능’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천부’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인간 존엄’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인권(人權), Human Rights)’로 드러나는데, 그 관계는 정원(庭園)과 정원의 생물(生物) 사이의 관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을 ‘인간의 존엄’이라고 한다면, 그 정원에 핀 꽃과 풀, 나비와 벌은 ‘인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잘 가꿀 때와 방치할 때 또는 잘못 가꿀 때, 각각의 광경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정원을 잘 가꾸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문명’의 길을 밟겠지만,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을 때 ‘야만’의 광경을 목도(目睹)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는 ‘인권들’에 관해 성찰하려 합니다) ☹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조용삼 베드로 복자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지난달까지 소개한 순교자들은 1801년 박해 이전에 위주치명(爲主致命)하신 분들이고, 이번달부터 이른바 **신유박해(1801) 순교자들**을 위주로 소개합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듯이 103위 성인들은 모두 기해 - 병오 - 병인 박해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평신도 신앙공동체로 시작되었고, 1801년 조선정부의 금교령을 시작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천주교를 금하게 되었습니다. 103위 복자가 시성되는 과정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자신이 알기로는 한국천주교회가 평신도 중심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3위 성인들의 중심에 모두 파리의 방선교회의 주교와 사제, 김대건 사제가 중심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담당 신부님께서는 79위 복자와 24위 복자 모두 선교사들이 도착한 이후인 1839년 이후의 순교자들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의 초기교회 순교

자들은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황님께서는 앞으로 그 한국의 초기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운동도 준비하라고 하였고, 그때부터 준비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 124위 순교복자들입니다. 그렇게 2014년에 시복된 124위 가운데는 초기 한국천주교회의 창설주역들과 뛰어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한동안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를 중심으로 풀어가면서, 그 이후의 순교자들 이야기로 서서히 넘어가보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순교한 분들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있으면서 현장조사에 대한 실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교회의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에서 검찰관 등 조사단이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하면서 두 포도청의 위치, 의금부 및 전옥서 등의 위치 그리고 당고개와 같은 서울의 사

형터의 위치를 찾고 그곳에서 순교한 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경기감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교복자 **조용삼 베드로**가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기록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1801년 박해령 이전에 체포되기는 했으나, 공식적인 박해령에 근거한 첫 번째 순교자이므로 조용삼 베드로를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124위 가운데 그가 유일하게 경기감영에서 순교한 것은 혹독한 형벌 가운데 그곳에서 옥사했기 때문입니다.

조용삼(趙龍三, 베드로, ?-1801)

조용삼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병약한 신체에 외모도 변변치 못하여 30세가 되도록 관례도 치루지 못하고 장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양근에서 아버지(조제동)와 두 형제(조용삼, 조호삼)가 천주교를 믿으며 어렵게 살다가, 여주의 임희영의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좀 더 교리를 배우며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명도회장이었던 정약종만큼은 병약하고 외모도 좋지 못한 조용삼

의 열심을 칭찬해주었습니다.

1800년 봄 부활대축일을 지내고 아버지와 함께 체포당했습니다. 체포 후 여주감옥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는 조용삼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나는 하느님께 내 목숨을 바치기로 하였고 그러면 분명 순교자가 될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결심이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제가 감히 제 자신만을 믿고 앞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만만하던 아버지는 첫 심문부터 관장 앞에 무릎을 꿇고 배교하였습니다. 관장은 베드로에게도 아버지처럼 배교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저마다 순리에 따라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공경하고 섬겨야 할 것인데, 천지간 만물의 공통된 아버지시며 대왕이신 분(천주)이 계시니, 우리 부모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 또한 그분이신데 어떻게 제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관장은 더욱 더



화가 났으므로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관장은 조용삼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때리며 회유하였습니다. “저는 본성의 정을 끊을 수 없으니 저희 두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결국 조용삼 베드로도 처음에는 매질과 협박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용삼은 옥에서 풀려났으나 이중배 마르티노로부터 꾸중을 듣고 다음날 다시 관장을 찾아가 배교를 취소합니다. “제가 어제 한 말을 지금 죽도록 후회합니다. 관장께서는 아버지는 그의 청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아들은 그의 죄로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장은 조용삼의 외모를 보고 쉽게 굴복시킬 것이라 생각하여,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형벌을 주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조용삼의 굳건한 모습을 보고 더 증오했으며, 관장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1800년 10월경(음력) 신자들은 경기 감사 앞에 출두하여 다시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심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용삼 베드로는 숨을 거두기 며칠 전에 “하늘에 두 임금이 없듯이 사람은 두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죽기를 원한다는 말밖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당시 조정의 상황을 지켜

보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이 승하하고 대왕대비 김씨(정순왕후)의 박해령이 1월10일(양력 2월22일) 반포되자 더욱 형벌이 가해졌으며, 조용삼 베드로는 2월 14일(양력 3월 27일) 경기감영에서 옥사하였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그때까지 예비신자였던 것입니다.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에서 불이 났다는 소문이 돌아 마을 사람들과 아전들이 확인하러 갔는데, 불은 보이지 않고 그곳 하늘에 밝은 광채가 퍼져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최초로 모아 정리한 다블뤼주교의 「조선순교자 역사비망기」는 조용삼 베드로에 대한 순교자전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의 교인들은 조용삼에게 크나큰 공경을 드렸으며, 그의 이름은 아직도 거의 모든 이의 입에 오른다. 그는 가난한 처지 때문에 결혼도 못하였으나 저마다 아끼는 어린아이의 심성과 순결함이 공동체에서 그를 더욱 사랑받게 만들었으니, 우리는 그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담고 말하는 것만을 들을 뿐이다. 황 알렉시오(황사영)는 이렇게 말했다. ‘옥에 갇혀 있던 11개월 동안 그의 아름다운 언행과 선행들은 너무나 많았는데, 나는 그것을 기억할 수 없어 상세하게 적을 수는

없으나 훗날 그것들을 찾아보려 한다.’”
조용삼 베드로의 신앙과 굳셈의 덕을 잘 알아본 이는 정약종 복자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 그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

삼 베드로는 1801년 박해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기 이전에 붙잡혀서 옥에서 지속적으로 형벌을 받고, **신유박해로 인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

묵상 1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미래의 일에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은 교만을 야기합니다. 조용삼의 부친 조제동은 순교를 확신했으나 단번에 배교하고 맙니다. 그러나 겸손했던 조 베드로는 그 모든 형벌을 받아들이고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결심이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제가 감히 제 자신만을 믿고 앞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의 덕이 곧 순교**입니다.

묵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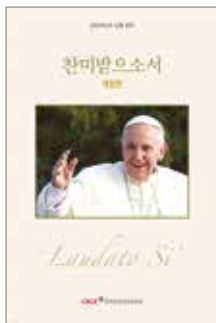
한 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순교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지만, 조용삼 베드로는 정약종 복자의 가르침과 격려로 더욱 굳은 신덕을 갖게 됩니다. “하늘에 두 임금이 없듯이 사람은 두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라는 그 증언이 천주신앙이요, 초기교회의 임자사상을 드러냅니다.

정약종의 『주교요지』 첫 머리에는 “인심(人心)이 스스로 천주 계신 것을 아나니라”라는 제목 밑에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무릇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봄에 그 위에 임자가 계신 것을 아는 고로 질통고난(疾痛苦難)을 당하면,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면하기를 바라고, 번개와 우레를 만나면 자기 죄악을 생각하고 마음 놀랍고 두려우니, 만일 천상에 임자가 아니 계시면 어찌 사람마다 마음이 이러하리오?” 조용삼 베드로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육신적 형벌이 아니라 자신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신 세상의 주인과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부모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그분이 제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인간의 소명과 역할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생태적 겸손을 요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 세계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각별한 위치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른 피조물들과 수평적인 관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만이 가진 특별함과 고유한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번 달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과 소명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인간의 고유한 역할과 관련하여 회칙이 강조하는 “노동의 가치”(124항)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노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일’이라

고 생각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노동을 “우리가 다른 존재와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 하는 관계”(125항)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노동을 통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너의 노동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집니다. 또한 우리는 노동함으로써 주위 세계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노동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하느님께서 사물에 심어 넣으신 가능성이 전개되도록”(124항) 돕게 되는 것입니다.

회칙은 노동이 “인간과 그 주변 세계의 올바른 관계”(125항)를 위한 길임을 강조하며 베네딕토 성인의 생태적 지혜를 소개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베네딕토 성인은 그의 수도승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영적 독서와 더불어 육체노동도 할 것”(126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영적 의미를 담은 육체 노동의 도입”(126항)은 노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이 새로운 전통을 통하여 수도승들은 땅을 재생산 가능하도록 가꾸는 법을 배우고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단순히 자연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여러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바람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지요. 이처럼 베네딕토회 전통 안에서 우리는 “노동하라는 부르심”(128항)에 응답하여 자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개입

베네딕토회 전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개입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자연의 질서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동식물의 유전자를 마음대로 다루어도 될까요?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피조물의 본질에 따라 자연이 발전하도록”(132항) 자연에 영향을 주는 개입은 정당하다고 가르치면서도,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할 때는 그로 인해 발

생하는 영향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힘에 있어서 그 활동의 목적과 “윤리적 한계”(131항)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기술을 통한 조작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특히 “생명 공학을 통한 유전자 조작”(132항)에 있어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날 유전학이나 생물학의 발전을 통한 기술이 농업과 산업에 많은 혜택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기술 적용”(133항)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한 혜택이 아무리 크더라도, 인간 개입의 부정적 영향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 기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식품 안정성, 생태계 교란, 생물 다양성 파괴, 거대 기업의 독과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에 관련된 모든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135항)을 내리자는 것이지요.

생태적 책임

138억년에 이르는 우주 나이를 1년으로 압축해서 보면, 1월 1일 우주의 탄생 이후 태양계는 8월 31일, 지구는 9월 10일경에야 등장합니다. 인류는 12월 31일 밤 11시 52분에 출현해, 11시 59분에 농사를 지으며 무리지어 살기 시작합니다. 근현대사가 시작된 것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입니다. 이 우주력은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주로 언급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인간의 특별함도 함께 봅니다. 인간은 138억년 우주 역사 속에서 우연히 출현한 의미없는 유기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가 아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간은 우주의 새내기이면서도 온 우주를 마음과 상상력 안에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의식적인 계획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종도 우리 인간이지요. “지난 1천 년간 스스로를 직접 다스려

온 지구는 이제 인간의 결정을 통해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토마스 베리의 말처럼, 인류가 지구 공동체에 끼칠 힘은 막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힘은 특별한 ‘선물’이자 중대한 ‘책임’을 의미하겠지요. 물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생명체들과 공통점이 많고 그들에 비해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지능으로 도구를 만들어 협력하고 높은 수준의 추상적 사유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생물종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인간과 침팬지는 대부분의 유전자가 같다고 하지만, 자기 유전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침팬지가 있을까요?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인간이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67항) 창조된 존재로서 특별한 창조성을 부여받았고, “하느님의 협조자”(117항)로서 지구 공동체를 보존하고 돌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서 우리의 소명”(217항)은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이 생태적 소명은 몇몇 환경운동가들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입니다. “지성과 사랑이 부여된 인간은 그리스도의 총만으로 이끌려 모든 피조물을 그들의 창조주께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83항).

오늘날의 심각한 기후 위기를 보며 우리가 그동안 생태적 소명에 충실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지구를 해치는 ‘나쁜 바이러스’이고 다른 생물종들에게 ‘공공의 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고유한 가치까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망쳐놓고 회복하려 할 만큼 어리석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의 미래를 걱정하는 존재이기도 하지 않을까? 수많은 결함과 쉽게 잘못을 저지르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인간은 자신을 성찰하고 문제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맙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사랑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존재입니다”(65항).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실베스텔 1세 교황

St. Silvester I (축일: 12월 31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미국의 유명한 배우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실베스터 스탤론(Sylvester Stallone)’입니다. 근육질에 선이 굵은 외모를 자랑하며 할리우드의 대표적 배우로 영화 「록키」와 「람보」를 우리들에게 각인시킨 남자 배우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탈리아계 미국인입니다. 그의 부모는 매우 가난해서 실베스터를 병원에서 낳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공공 의료시설에서 낳았는데, 실베스터의 분만 담당 의사가 실수로 그만 그의 왼쪽 눈 밑의 신경을 손상시키는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평생 페널티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힘껏 노력해서 할리우드 대표 배우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실베스텔 1세 성인 교황도 그런 척박하기 그지없던 환경에서 피선된 첫 교황이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종결시키고, 드디어 고대하던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정식으로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 하에 온갖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뎌오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박해 이후 피선된 첫 교황님이며, 그분의 이름이 ‘실베스텔(Silvester/Sylvester)’이라는 점이 이목을 끄니다.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과 성인 교황 실베스텔 1세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담긴 이 이름의 어원적, 영성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디 라틴어로 실바(Silva/Sylva)는 그 뜻이 영어 글자 그대로는 ‘Wood, forest, trees, park, garden’를 뜻합니다. 곧, 나무, 수풀, 공원이자 정원을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는 ‘abundance, heap, abundant materi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유적으로는 풍성함, 부요함, 더미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무수한 풍요를 말하며 재목(材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학식과 능력, 재주 따위를 갖춘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인재(人材)가 바로 라틴어 ‘실바(Silva)’에 해당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언킹’에서 주인공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실바(Silva/Sylva)입니다. 그는 고독하지만 밀림의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에게 이런 이름이 주어진 까닭이 바로 그 이름이 원래 라틴어로 밀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딱 어울리는 이름인 것입니다.

실베스텔 1세 교황은 284년에 사제서품을 받은 이후 박해 동안은 이탈리아 소라테 산(Monte Soratte)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314년 1월 31일에 성 멜키아데(Melchiades, 12월 10일) 교황을 계승하여 국교

인정 이후 첫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21년간 교황직을 수행했고, 현재의 로마 라테라노 대성당에 머물렀습니다. 실베스텔 1세 교황 재위 중에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당이 건축되었습니다. 실베스텔 1세 교황에 대한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교회 규율을 정비해 발표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도움으로 로마에 많은 성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실베스텔 1세 교황은 즉위 초기부터 이단인 도나투스주의와 아리우스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18년 아를(Arles) 지역 공의회에서 도나투스주의를 단죄하였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도 특사를 파견해서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등, 정통 신앙을 수호하고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성인 교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콘스탄티노플 대제 자신마저도 실베스텔 1세 교황을 당대 그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고 현명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신에게 거룩한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335년에 선종하여 프리실라의 무덤에 12월 31일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축일이 한 해의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가장 큰 인물은 가장 큰 시련을 통해 탄생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와 사회 안팎에서 지혜롭고 용기가 필요한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베스텔 1세 교황과 같은 ‘대들보’, ‘기둥’, ‘인재’를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St. Stefanus (Artist: Giotto /1266–1337, Photo by Giotto di Bondone, Museum Horne, Florence)

최초의 순교자 (protomartyr)

최초의 순교자(protomartyr)는 특히 성 스테파노(St. Stephen, 라:Stephanus)를 지칭하며, 축일은 12월 26일이다. 중세의 유럽대륙에서 가장 널리 존경받던 성인의 한 사람이고, 최초의 부제(副祭)라고 한다. 사도행전 6,1-8,2에 그의 임명과 연설, 그리고 순교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는 디아스포라(diaspora)에 살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추측되며 사도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식량 배급을 할 7인중의 한 사람으로 뽑혔다(사도 6,5). 또한 설교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하였으므로(사도 6,8-9),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산헤드린에게 고발되었다.

사도행전 7,2-53에는 박해자들 앞에서 행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연설이 실려 있는데, 이에 화가 난 유대인들은 모세법에 따라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 때 뒤에 성 바오로가 된 사울이 있었다. 스테파노는 그리스도에게 박해자들을 용서할 것을 청하며 순교하였는데, 이런 태도는 후세에 여러 순교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무덤은 415년 사제 루시안(Lucian)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알려지지 않았었다. 축일은 4세기말부터 12월 26일로 지켜졌으며, 2년에 한 번씩 그의 유해를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성 스테파노 유해발견 축일’(Inventio St. Stephani)이 8월 3일에 지켜졌다. 그러나 발견 기념일이 1955년 이후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455~460년에 에우도키아(Eudoxia) 여황제는 다마스쿠스 성문밖에 그를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유적지가 1882년에 도미니코회에 의해 발견되어 새로운 그의 교회가 세워졌다. [출처: 가톨릭대사전]

자녀의 의무?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베드로와 파비올라는 성당에서 ME활동을 30년째 해 온 모범적인 부부이다. 그런데 최근 홀로 되신 장모님 부양 문제로 고민이 많다. 파비올라는 혼자되신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어느 날, 베드로는 TV 뉴스를 보다가 파비올라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여보, 한국 남성의 경우 56세에서 75세 사이에서 절반이 사망한다네. 내 나이도 벌써 65세야! 앞으로 더 건강에 신경쓰며 살아야 할 것 같아.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장모님 우리집에 모시고 싶어 하는거 알지만 그냥 요양원에 모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 말은 들은 파비올라는 “그건 아니지. 당신 신경쓰지마. 내 부모는 내가 모실거야.” 하며 횡하니 나가 버렸다.

그런데 저녁 늦게 친구들을 만나고 귀가한 파비올라는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베드로에게 “당신말도 일리 있는 것 같아.”라는 말을 던지며 자기방으로 들어갔다. 반나절 동안 이러저런 생각이 많았던 베드로는 바뀐 파비올라의 태도에 어리둥절한 마음이 들었다.

1
주님을
초대한다

2
삶을
바라본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Question

건강과 경제적인 형편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부모를 집에 모시는 것을 주장하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집회서 3장 3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부모 봉양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부모 공경(효도)은, 부모가 생명의 선물로써 자녀들을 세상에 낳고, 사랑과 수고로써 나이와 지혜와 은총이 자랄 수 있게 해 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 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어머니의 산고를 잊지 마라. 네가 그들에게서 태어났음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네게 베푼 것을 어떻게 그대로 되갚겠느냐?”(집회 7,27-28)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15항]

자녀들의 부모 공경은 가정생활 전체를 화목하게 하며, 이는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에도 관련이 된다. 부모에 대한 존경은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해 준다. “손자들은 노인의 화관이다”(잠언 17,6).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십시오”(에페 4,2).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19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브루크너 - 불공평한 세상을 방황하는 오르가니스트의 노래 (1)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클래식 음악이 현대음악에 들어서기 직전 후기 낭만주의의 끝자락을 장식한 바그너와 말러의 음악은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는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하지만 한번 빠져들면 그 중독성이 너무도 강해서 ‘바그너리안’과 ‘말러리안’으로 불리는 두터운 애호가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중독성을 자랑하는 ‘브루크너리안’도 있다. 애호가층 밖에서 보는 음악의 문외한 입장에서, 바그너나 말러는 비록 시끄럽게 들릴지언정 지루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브루크너는 길면서 지루하기에 더더욱 불가사의한 눈초리로 브루크너리안을 쳐다보기 마련이다. 왜 브루크너일까 하고... 인물 그 자체로도, 바그너나 말러와 달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명으로 평생 촌구석의 오르가니스트로서 지냈던 **안톤 브루크너(Josef Anton Bruckner)**였다. 분명 그는 1824년에 태어나서 1896년 타계한, 독신이지만 스캔들 하나 없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간 오스트리아의 작곡가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교향곡은 마치 차가운 석조 예배당의 고딕건축의 광대한 공간을 채워가는 듯한 은근한 떨림이 오르간의 진동처럼 음향적으로 깔려있다. 마치 불공평한 세상을 방황하는 듯한 소리 뒹어리가 쏟아지는 노래로 토해낸다. 들으면 들을 수록 신비한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그렇게나 평범하다못해 소박한 삶에서 이런 음악이 쏟아지다니! 세상이 브루크너의 깊이를 알게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다. 당대 브루크너는 예수가 넘어서야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하였지만, 그는 조그만 명성을 쌓기 시작하여 대도시 빈으로 불려간 후에도 평생 시골 수도원의 예배당과 숲을 그리워하였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성 플로리안 수도원(Stift Sankt Florian) 예배당의 오르간 밑에 묻어

Bruckner: Symphony No. 4 & Wagner: Lohengrin Prelude to Act 1

Release Date: 16th Feb 2018

Catalogue No: 4797577

Label: DG

Series: Nelsons Bruckner Symphonies

Length: 79 minutes

Conductors: Andris Nelsons

Groups & Artists: Gewandhausorchester Leipzig

BBC Music Magazine: July 2018

Orchestral Choice



달라고 유언을 하였고, 실제로 그의 시신은 현재 그 오르간 밑에 묻혀있다.

이런 브루크너에 대하여 음악학자들은 다른 음악가들과는 달리 먼저 브루크너의 삶으로부터 음악적 특징을 도출해낸다. 브루크너 음악은 소리를 벽돌 덩어리처럼 차곡차곡 쌓아올려졌기에 그 속에 들어가 건물 전체 속으로 울리는 진동과 그 분위기까지 마치 거대한 성당 속에서 몸으로 체험하듯 느끼는 음악이기 때문이라. 음악학자들은 브루크너처럼 기도와 참회와 성찬과 고백 등이 그의 생활의 중심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음악의 중심까지 형성했던 작곡가는 19세기에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삶으로부터 그의 음악을 관통하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바로 ‘교회’와 ‘자연’이다. 물론 ‘교회’가 키워드이니만큼 교향곡 이외에 교회용 미사곡들도 많고, 특히 ‘테 데움’이 유명하지만, 그의 음악은 무엇보다도 11곡의 교향곡으로 대표된다. 그의 교향곡에는 기도문이 없어도 새소리가 없어도 교회와 자연이 자연스레 읽혀진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듣기보다는, 먼저 우리 몸으로 1071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의해 건립된 고풍스런 성 플로리안 수도원과 그 주위의 숲을 산책하면 자연스레 그의 음악의 핵심을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은 11곡이지만, 그 중 ‘Study Symphony’라고 불리는 곡



Bruckner: Symphony No. 7 & Wagner: Siegfried's Funeral March
Gewandhausorchester · Andris Nelsons

Release Date: 20th Apr 2018
Catalogue No: 4798494
Label: DG
Series: Nelsons Bruckner Symphonies
Length: 76 minutes
Conductors: Andris Nelsons
Groups & Artists: Gewandhausorchester Leipzig

과 ‘교향곡 0번’은 브루크너의 초기 습작품으로 거의 연주가 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음반이나 연주회에 듣는 브루크너의 교향곡은 1번에서 9번까지의 9곡이다. 그 중에서도 4, 5, 7, 8, 9번이 ‘브루크너리안’에게 사랑받는다. 브루크너의 교향곡들 중에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가까스로 대중에 알리기 시작한 곡은 ‘낭만적(Romantische)’이라는 부제가 붙은 1881년 초연된 **교향곡 4번 Eb장조**이다. 이미 1874년 작곡되었지만 교향곡 3번까지의 연이은 실패로 의기소침해진 브루크너가 1877년에서 1880년까지 개정을 거듭하였다. 브루크너 자신이 이 곡에 대해서 “... 중세의 도시. 새벽 도시의 탑에서 잠을 깨라고 울리는 소리 - 문들이 열리고 - 멋진 말을 타고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기사들, 자연의 마력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 바스락거리는 숲 - 새들이 노래하고 - 그래서 낭만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이 곡은 신비스럽고 안개에 싸인 듯한, 깊은 숲속을 방황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당시 브루크너의 교향곡들은 그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전에 청중의 이해를 받지 못했고, 이 교향곡 4번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1884년 초연된 교향곡 7번에 이르러 비로소 성공을 거두면서 그 동안 외면당했던 다른 교향곡들도 대중의 주목 받기 시작했다. 그 때 작곡가의 나이가 60세였다. 4번과 더불어 비로소 브루크너를 널리 알린 작품은 **교향곡 7번 E장조**다. 우리나라에서도 2악장 ‘아다지오’는 2004년 방영된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해상에 배들이 몰려가는 비

Bruckner: Symphony No. 9 in D Minor
Lucerne Festival Orchestra, Claudio Abbado

Release Date: 7th Jul 2014
Catalogue No: 4793441
Label: DG
Length: 63 minutes
Conductors: Claudio Abbado
Groups & Artists: Lucerne Festival Orchestra
BBC Music Magazine Awards 2015
Orchestral Award Winner
Recording of the Year 2015
Gramophone Awards



장한 장면에 흘러나와 당시 마치 유행가처럼 유명해지기도 하였다. ‘신의 존재’에 대한 브루크너의 ‘점층적 숙고’(음을 반복을 통해 쌓아 올림)가 돋보이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은 2년여의 시간 끝에 1883년 9월 5일 완성되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늘 장고를 거듭하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작곡 스타일로 볼 때 오히려 빠른 편이다.

브루크너는 브루크너만의 음악어법이 있다. 매우 독창적인 브루크너의 음악은 건축물에 비유된다. ‘음이 하나 나타나고, 거기에 다시 음이 겹쳐지고, 또 그 위에 음을 겹치는 과정이 집요하게 반복됨을 느낄 수 있어 ‘**브루크너 점층법**’이라고 불린다. 시작은 주로 트레몰로와 더불어 서서히 쌓아가면서 커지므로, 특히 ‘**브루크너 개시**’라고 불린다. 그러다보니 필연적으로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첫째, 음악이 대책 없이 길다. 그가 남긴 9개(원래는 11개)의 교향곡은 대부분 기존의 고전 교향곡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한다. 모두 끝없이 이어지는 선율이 쌓인 결과인데, 유달리 신중한 성격이었던 브루크너는 작곡을 마쳐놓고도 주변의 조언에 따라 지나치게 커진 작품을 잘라내는 작업을 여러 차례 해야 했고, 이것이 오늘날 남아 있는 브루크너의 교향곡에 수많은 판본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이런 결과로, 대중적인 인기는 제로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나마 교향곡 작곡가로 대접받은 것은 50대에 접어들어 발표한 4번 교향곡이 알려지면서

였고, 7번에서야 겨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시 화려함에 익숙한 빈의 청중이 그의 진가를 알아봐 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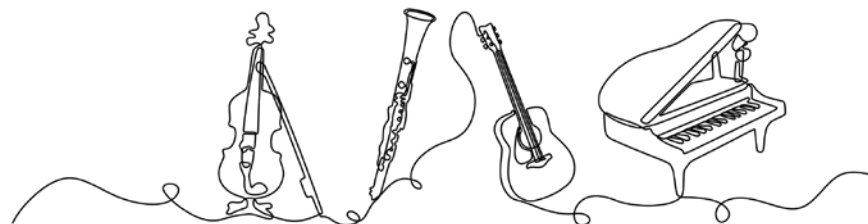
이러한 그의 음악어법을 애써 정리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곡의 처음부터 느리고 긴 테마가 나온다(이른바 '브루크너 개시').
- ② 전체적으로 서서히 '고조'시키고 서서히 '해소'시키면서 개별적으로는 무한히 반복된다.
- ③ 리듬은 다성리듬(Polyrhythm)적이고 동시다발적이다.
- ④ 음악의 단위가 마치 벽돌과 같이 하나의 소리 덩어리여서, 멜로디조차도 화성적인 음악(종적인 음악)이다. 그 멜로디의 내성에서도 세부적으로 음들이 서로 계속 부딪히지만 크게 보면 조화를 이룬다(내성들의 밸런스가 마치 하늘의 별처럼 펼쳐진다!).
- ⑤ 멜로디의 '저음선율(base line)'이 하강하면 '고음선율(soprano line)'은 상승한다(선율의 역진행).
- 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음이 떨린다('트레몰로'). 희열과 함께 중독성을 주는 떨림이다.
- ⑦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상승과정(Steigerungsprozeß)'이 있다. 이때도 (마치 오르간의 페달과 같이) 단단한 저음부가 받혀준다.
- ⑧ 음이 단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건너뛰는 듯이 움직인다('step'이 아니라 'skip'으로). 이것이 브루크너의 '화성적 멜로디(Harmonische Melodie)'이다. 예측을 불허할 정도의 도약하는 내림(하강)과 올림(상승)으로 감성적인 아름다움을 준다.
- ⑨ 음악이 진행 중에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이 음악이 멈추는 지점이 있다('브루크너 휴지'). 마치 하느님과 조우하는 시간 같다.
- ⑩ 바그너 영향으로 반음계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현실을 상징하는 온음계와 대비시킨다('고통-쾌락', '절망-희망', '꿈-현실'의 극명한 대비!)

⑪ 거의 불협화음으로 끝내도 불쾌하지 않다. 왜냐하면 '상승과정'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⑫ 음악이 서서히 사그러질 때 마치 자아나 인식을 놓아버리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브루크너의 음악어법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일단 지루하도록 반복되는 브루크너의 음악은 어느 경우에도 서서히 고조되고 서서히 해소되기 때문에 자극에 익숙한 현대인의 귀에는 너무도 맛있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브루크너의 반복의 음악을 지루해하지 말고 불교 신도가 선승을 뵈려면 3000배를 해야 그 선승의 암자에 들어가는 허락이 떨어지는 점을 생각해보자. 실제로 과거 성철스님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실제로 반복은 도취를 불러오기에 대개 세상의 종교음악이나 종교적 춤은 이러한 반복을 이용하여 '신의 경지'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들 들면, 인도의 라비 상카의 시타르도 인도 5음계의 계속적인 반복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에 착안한 것이 현대음악가 필립 글래스의 음악이다. 브루크너는 아주 작은 음을 4도(도-파)와 5도(솔-레) 또는 완전8도를 쌓아올린다. 보통 3도나 6도(베토벤의 경우는 대개 완전5도)를 사용하면 꽤 찬 느낌을 주는데 반해서, 브루크너가 사용하는 4도나 5도는 '공허'한 여백미를 준다. 옛 바로크 시대부터 하느님을 상징하였던 완전4도에도 반음이 1개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브루크너의 음악은 우리에게 이러한 여백을 쌓아올리다 보면 마치 최면술사와 같이 '인식을 놓아버리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해준다. 브루크너의 음악은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한다고 계속 일깨워준다. 자아의 철옹성을 쌓은 나를 비워보자. 브루크너의 화성의 여백처럼...



함께 읽는 세계 문학

“약속은 약속이야.”

- 데이먼 갈컷의 소설과 약속의 정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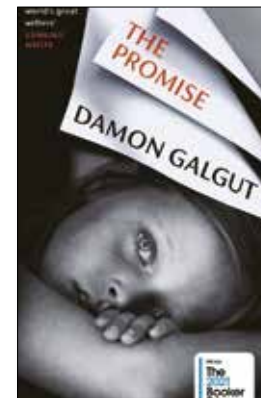
왕은철 미카엘 전북대학교 영문과 석좌교수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간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약속으로 가득한 것이 삶이다. 인간만이 아니라 신도 약속을 한다. 그것이 인간의 것과 다른 점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다. 성서 속의 신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이끌겠다는 약속도, 아이와 함께 사막에 버려져 울고 있는 하갈에게 했던 약속(“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도 반드시 지킨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한 상황이 되어도 한 번 입 밖에 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아폴로는 아들 페이튼한테 무슨 약속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아들이 태양 마차를 몰게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자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되고, 아무 경험이 없는 아들은 태양 마차를 몰다가 중심을 잃고 지구에 불을 낸다. 약속을 철회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신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화라서 가능한 다소 허황한 얘기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행되어야 한다는 거다. **신이 확인하는 약속의 신성함.**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깨진 약속의 파편과 배반의 잔해로 가득하다. 멀리 갈 것까지도 없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약속들을 어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나 공동체도 약속을 어기고 신의(信義)를 배반하긴 마찬가지다. 때로는 약속이라는 것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단 해보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러게 되면 약속의 신성함은 사라지고 말의 껍



데기만 남는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쨌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늘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들이 인간의 삶을 살 만한 것으로 만든다.



The Promise

저자 Damon Galgut

출판 Random House UK

출간 2021.06.17

2021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작가 데이먼 갈컷의 『약속』은 그러한 약속에 관한 소설이다. 소설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신하여 자기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대비시키며 약속의 의미를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으로,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으로 사유하고 탐구한다. 그래서 제목도 ‘약속’이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정관사를 생략하는 게 우리말 습관이지만 제목은 “그 약속”(The Promise)이라고 옮기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스토리가 구체적인 약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농장에 사는 백인 부부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내 레이철은 남편 마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살로미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살로미에게 넘겨주라는 부탁이다. 살로미는 평생에 걸쳐 그들의 살

림을 해준 하인, 아니 하인이라기보다 가족 같은 흑인여성이다. 암과 사투를 벌이는 레이철을 마지막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도 그녀다. 레이철은 고마운 그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런 부탁을 한다. 남편은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가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그들의 막내 딸 아모르가 우연히 듣는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확인해줄 증인까지 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살로미가 살고 있는 집은 값나가는 집도 아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줄줄 새서 아래에 그릇을 받쳐놓아야 할 정도로 낡고 허름한 집이다. 게다가 살로미가 어린 아들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으니 그저 문서만 넘겨주면 된다. 아니, 어쩌면 당분간은 문서까지도 필요 없고 그 집이 이제부터 살로미의 것이라는 말만 해줘도 될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마니는 아내가 죽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죽어가는 사람과의 약속이니까 더 지켜야 하지만, 죽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약속의 성스러움이라는 개념이 그에게는 없다. 그는 흑인한테 집을 넘겨주는 것이 본능적으로 싫다. 종으로 부리며 사는 흑인 여자에게 집을 주다니 그럴 수는 없다. 더욱이 살로미는 그 집에 이미 살고 있지 않은가. 집세를 내는 것도 아니니 이후로도 거기에 그냥 살면 될 일이다.

편리하게도 법은 그의 편이다. 아파트헤이트 정권은 흑인이 백인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법령을 만들어 놓았다. 흑인들은 남아프리카 땅에 살아도 국민이 아니었다. 흑인은 백인에게 소유되는 존재지, 뭔가를 소유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흑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해 살면서도 흑인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헐벗은 불모의 땅에 반투랜드, 즉 흑인자치구를 만들어 그들을 몰아넣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방치한 것이다. 흑인들에게는 참정권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통행증이 있어야 했다. 그들이 백인들이 사는 구역에 땅이나 집을 소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소설의 초반부가 1986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흑인들의 시위가 남아프리카 전역에 건잡을 수 없이 번지자 아파트헤이트 정권은 1986년 6월 12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백인정권이 느끼는 위기위식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밖으로는 세계적인 경제제재가 그들의 목을 죄었고, 안으로는 건잡을 수 없는 시위와 소요가 이어졌다. 결국 아파트헤이트 정권은 더 크고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흑인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마니가 했던 약속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남아프리카 정치상황에 대한 알레고리가 된다. 정권은 백인에게서 흑인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다. 마니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흑인들의 것을 흑인들에게 돌려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된다. 문제는 그가 그 약속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데 있다. 진심으로 했던 약속도 세월이 지나면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진심이 아니었던 약속이 지켜질 리가 없다. 마니는 막내딸 아모르가 그 약속을 환기시켜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한다. 그러다가 그가 자신이 운영하던 파총류 공원에서 뱀에 물려 죽으면서 약속은 흐지부지된다. 1995년의 일이다. 그는 지난 9년 동안 약속을 지킬 기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지키지 않고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는 법 핑계를 대며 약속을 안 지켰고 나중에는 법이 바뀌었음에도 안 지켰다. 그의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 안톤이나 큰딸 아스트리드도 약속의 이행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흐르고 아들은 자살로 죽고 딸은 강도를 당해 죽는다. 결국 막내딸 아모르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죽고 나서야 그 약속은 실현된다.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한 사람은 아모르였다. 오빠에게 아버지 대신 약속을 지키라고 한 사람도 아모르였다. “약속은 약속이야.” 그래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다가 결국 30여 년이 흘러서야 지켜진다. 작고 허름한 집 하나를 넘기는 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소요된 것이다. 더럽고 누추하고 비가 새고 몇 마리의 닭들이 주변의

흙속에서 뒹구는 초라한 집을 넘겨주는 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이다. 아모르가 집을 넘겨줄 수 있게 되었을 무렵, 살로미는 아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모르의 올케, 즉 죽은 안톤의 부인 데지레가 월말까지 집을 비우라고 한 것이다. 이제는 수십 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그래서 살로미는 그곳에서 320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려고 한다. 바로 이 시점에 아모르가 와서 올케의 말을 뒤집는다.

아모르는 특이한 사람이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닌 약속에 강박이 되어 살았다. 그녀가 일찍부터 농장을 떠난 것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 에 대한 실망에서 그랬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아프리카 농장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자신이 정당하게 누릴 삶이 아닌 것 같아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농장에 살다가 때가 되면 잘 사는 다른 백인남자를 만나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간호사가 되어 에이즈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돌보는 삶을 택했다. 그렇게라도 해서 농장과는 거리를 두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농장이 어떤 곳인가. 농장은 착취와 식민주의의 현장이었다. 백인들이 원주민들에게서 강탈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그들의 삶을 일구는 현장이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문학에 나오는 농장은 단순히 가축과 농작물을 키우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착취당한 땅 전체를 지칭하는 은유적 공간이다. 백인문학의 원조에 해당하는 올리버 쉬라이너의 『아프리카 농장 이야기』, 쉬라이너에게서 심오한 영향을 받은 쿿시의 『추락』과 『마이클 K의 삶과 시대』 등에 나오는 농장이 남아프리카에 대한 은유인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아모르가 아버지 생전에도, 아버지 사후에도 농장에서 나오는 자기 몫의 돈을 받지 않은 것은 그러한 농장이 함의하는 것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녀의 의도와 상관없이 농장에서 나오는 돈은 그녀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결국 그녀는 그 많은 돈을 모두 살로미에게 주고 떠난다. 어렸을 때 자신을 친자식처럼 돌봐

준 살로미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한 것이다. 어차피 모든 돈은 흑인들의 노동과 희생을 기반으로 얻어진 것이니 흑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농장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돈을 살로미의 통장에 이체하고 농장을 영원히 떠나기로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도시로 돌아가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이다.

그녀가 그렇게 한다고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 살로미의 삶은 달라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삶이지, 흑인 전체의 삶은 아니다. 정치의 지형이 바뀐다고 경제의 지형이 쉽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1986년에서 시작하여 2018년에 끝난다. 그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가. 자크 데리다가 “세계의 몸에 난 악성종양”이라고 일컬은 아파르트헤이트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흑인들은 주권을 회복하고 그들의 대통령을 선출했고, 대부분의 권력은 백인들에게서 흑인들에게로 넘어갔다. 전에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변화다. 그렇다면 경제의 지형도 엄청난 변화에 걸맞게 바뀌었을까? 그렇지 않다. 백인들의 소유였던 것은 여전히 백인들의 것이고, 많은 흑인들은 여전히 백인들에게 기대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아모르가 농장에서 나온 모든 돈을 살로미에게 주는 것은 개인으로서 엄청난 것이지만 흑인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의는 추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선의가 쌓여야 정의도 실현되고, 개인이 약속을 지켜야 공동체의 약속도 지켜진다. 아모르의 실천적 의지와 희생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세상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모르처럼 약속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까지 내어주려 하는 사람도 있다.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구현하는 윤리성이다. 그것은 신이 인간 안에 심어 놓은 윤리성인지 모른다. ❷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시작에 대한 단상(1)

정현영 요셉, 중견사제연수원 연수사제



영화는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그랑 카페라는 곳에서 최초로 상영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날을 영화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를 연극, 회화, 무용, 건축, 문학, 음악과 함께 제7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중에 명확하게 자신의 생일을 가지고 있는 예술은 영화밖에 없습니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하나의 길이가 1분도 채 되지 않는 십여 개의 짧은 필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준 충격은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차의 도착>은 50여 초의 짧은 필름으로, 기차가 들어오는 역사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기차는 화면의 오른쪽 가운데에서 사람들보다 작게 보이다가 왼쪽의 화면을 가득 채우며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차가 멈춰서면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날에도 명절의 분위기를 전

하는 뉴스 화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 수많은 동영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움직이는 화면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텔레비전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브라운관 안에 작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던 것처럼, 화면 뒤쪽에 기차를 가져다 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기차를 피해 도망쳤다는 일화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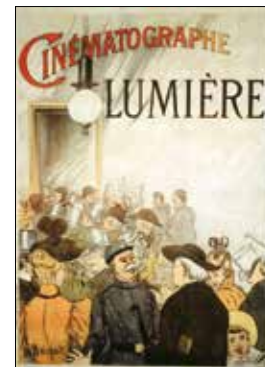
어떻든 최초의 영화는 요즘 영화보다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요즘 영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야기입니다. <기차의 도착>은 플랫폰에 한 대의 기차가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탄다는 짧은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짧지만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공장 노동자의 퇴근>이라는 작품

은 공장에서 나오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장의 문을 나선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왼쪽으로 어떤 이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한 그들의 모습은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또 <정원사>라는 작품에서는 꽃들에게 호스로 물을 주고 있는 정원사가 등장하는데, 한 소년이 나타나서 호스를 밟아서 물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정원사가 호스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소년이 발을 떼서 정원사가 물을 맞게 합니다. 정원사가 소년을 붙잡기 위해서 뛰어 가지만 화면 밖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비록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야기와 화면 밖까지 나가지는 않도록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영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리얼리즘(사실주의)입니다. 하지만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길이의 필름 속에서도 영화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짜 세상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있음직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프레임 밖의 세상은 상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볼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영화 제작 현장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프레임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면이 보여주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화면 바깥까지 연장되어 있는 세상을 상상할 것



기차의 도착, 1895

L'Arrivée d'Un Train A La Ciotat

감독 루이 뤼미에르

촬영 루이 뤼미에르

국가 프랑스



공장 노동자들의 퇴근, 1895

Employees Leaving The Lumière Factory, La Sortie Des Usines Lumière

감독 루이 뤼미에르

촬영 루이 뤼미에르

국가 프랑스

입니다. 마치 안경을 쓴 사람이 눈을 돌리면 사각의 안경 바깥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감에 포착되지 않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시각을 예로 든다면,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이 방해를 받아서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보지 못했는데도 과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확인된 사실을 봤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좌우로 180-210도, 상하로 12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몸을 돌려야만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의 영화는 카메라를 이동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을 화면 안으로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소년이 정원사에게 붙들리는 모습을 한 화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멀리까지 도망가서는 안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화면이 정원사가 소년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사가 도망치는 소년을 쫓아서 화면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잠시 후

에 화면 안으로 정원사가 소년을 붙들고 등장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화면 바깥에서 정원사가 소년을 잡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비록 결정적인 장면을 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지만 또 한 편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은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상상력** 덕분입니다. 물론, 과도한 상상력은 망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빈곤한 상상력은 의심만을 키울 것입니다. 적절한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시간을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화는 프레임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를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생소한 것도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면 물을 주는 정원사는 익숙하고 공장 노동자는 생소할 것입니다. 반대로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기차는 익숙하고 정원사는 생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영화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잊고 있는 것은 환하게 빛나고 있는 빛의 화면이 아니라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공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며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이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의 영역에서 반쪽을 보았다면 나머지 반쪽은 어둠의 영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이든 실제이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영화는 첫 번째 상영이라는 형식으로 생일을 갖고 있지만, 사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촬영장비들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과 같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소설에서, 퍼포먼스는 연극이나 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을 포착한다는 점에서는 사진이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영화라는 혁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영웅 혹은 괴물을 만들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축적된 토대 위에 움직임을 잡아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이 덧붙여져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



정원사, 1895
L'Arroseur Arrosé

감독 루이 뤼미에르
촬영 루이 뤼미에르
국가 프랑스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새벽에 느끼는 감동의 예루살렘 - 예루살렘 구도시(3)

심연선 소화데레사_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올리브 산에서 내려와 키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구도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구도시는 벌꿀색의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진 성벽 안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벽은 1537년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숐레이만에 의해 재건된 것입니다. 성벽은 약km 키로의 둘레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중, 동쪽 성벽으로 다가갑니다. 예루살렘 동쪽의 문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돌로 메꿔져 있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문의 이름은 ‘황금문(Golden gate)’입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문이 이 문이다’라고 말하며 과거 순례자들은 가능하면 이 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원후 7세기 비잔틴 제국의 황제 헤라클리우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예루살렘 재탈환에 성공했을 때 이 문으로 성 십자가와 함께 입성했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오가지 못하게 돌로 막아버린 사람은 16세기에 성벽을 재건한 술탄 숐레이만인데, 그 이유는 황금

문을 통해 들어와 옛 성전 돌을 밟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된다는 소문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 성벽 중 다른 곳에 작은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의 이름은 ‘사자문’ 또는 ‘스테파노 문’입니다. 문 위쪽에 사자 두 쌍을 볼 수 있는데 술탄의 꿈에 등장한 사자를 기념하며 남겨놓았다고 전해지고, 또 다른 이름은 첫 순교자 스테파노 부제가 순교한 곳이 이쯤이다 하는 전승에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자문 또는 스테파노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반질반질한 돌바닥입니다. 무심한 듯 바쁘게 지나가는 팔레스타인 청년 뒤로 허잡을 쓴 인자한 얼굴의 할머니가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도시의 네 구역 중의 하나인 무슬림 구역입니다. 왼편으로 또 다른 문이 보이는데 성전산과 연결된 문입니다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산으로는 구도시 남쪽의 통곡의 벽 근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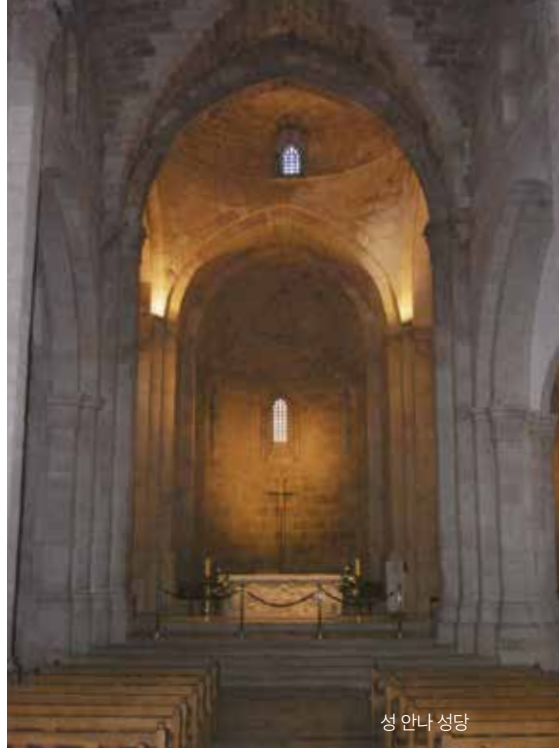
있는 문으로만 제한된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으며, 종교 관련 서적 또는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고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머무를 수 있는 등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완전무장을 하고 긴장한 얼굴로 있는 이스라엘 군인경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전산은 바위 사원이 자리하고 있는 이슬람교 제3대 성지 중 하나이기도 하고,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과 헤로데 대왕이 증축했던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구도시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지역이지요.

발걸음을 더 옮기면 오른편 벽에 작은 창살이 있는 창문 위아래로 ‘Bethesda’라는 표지판과 ‘NATIVE DE LA TS VIERGE MARIE’라는 대리석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벳자타(요한5,1)이며, 성모님이 태어나신 성지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뜰 앞으로 돌로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이 보입니다. 이 성당의 이름은 성모님의 모친인 안나 성녀에서 온 ‘성 안나 성





황금문



성 안나 성당



벳자타



십자가의 길

당'입니다. 성모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이스라엘에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곳마다 성 안나 성당이 지어졌습니다. 그중에 예루살렘 구도시에 있는 십자군 시대 때 지어진 성당만이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무슬림 지배시절에 성당을 파괴하지 않고 학교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명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성당이기에 이곳에서 순례자들이 성가를 부르는 것이 필수코스처럼 되었습니다. 성당 지하에는 성모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전해지는 동굴이 있으며 아름다운 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당 옆에는 고대 건축물의 잔해와 꽤 깊어 보이는 구덩이가 있는데, 이곳이 **벳자타 못**

이며 비잔틴 시대 때와 십자군 시대 때 지어진 기념성당들이라고 합니다. 돌무더기들 밖에 없고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끼가 어찌면 약간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데 묘하게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38년된 병자를 고쳐주신 기록이 있었던 곳이었기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 안나 성당과 벳자타에서 나와 작은 길을 따라 조금 더 이동하면 어린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건물과 반대편의 수도원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이 **십자가의 길의 시작**입니다. 십자군 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다고 알려진 이 길은 제1처부터 제9처까지는 길 위

에, 제10처부터 제14처까지는 무덤성당 안에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제1처에서부터 프란치스코회 신부님들께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시는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해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길 위에 있는 각각의 처에는 십자가의 길의 처임을 알려주는 청동으로 제작된 동그란 표지판이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제8처와 제9처를 제외하고 모든 처에는 작은 경당들이 있는데 관리하는 분들이 문을 열 때도 있고 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순례단들이 바깥의 표지판 앞에서 기도를 바치고는 하는데 기념품 가게의 호객꾼

들과 재래시장의 잡음들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것을 피하고자 새벽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벽잠을 봉헌하고 기도 시간 갖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적막으로 가득 채워진 돌길 위를 기도 소리로 적셔가며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며 걷는, 예루살렘 새벽 공기의 농도가 지금도 마음 속 깊이 아련하게 그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 성당**에 도착하면 아늑하게 느껴지는 성당의 온도가 예수님의 따뜻한 손바닥 기운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신 곳, 예수님께서



무덤성당-골고타



무덤성당 내부



무덤성당-예수님의 빈무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곳, 예수님 시신을 얹힌 곳,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까지 모두 무덤성당 안에 있습니다. 낮에 성당에 방문하시면 바깥 예루살렘의 높은 고도아래 햇빛에 비해 어둡고 침침한 느낌이 먼저 다가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긴 줄에 서서 차를 기다리며 골고타 조배와 무덤 참배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이곳을 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며 평생을 기다려 온 순례자들이 나 혼자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성당은 헬레나 성녀의 부탁으로 콘스탄티

누스 대제에 의해 지어진 4대 성당중 하나로 기원후 326년경에 지어졌고, ‘아나스타시스(부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교도들과의 전쟁과 지진으로 무너졌다 다시 지어졌다는 반복하고 현재의 모습은 십자군 시대 때의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무덤성당’이란 명칭도 그때 붙여졌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가톨릭 교회가 각각의 제대를 지키며 시간에 따라 기도와 전례를 하고 있고 시리아 정교회, 콥틱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도 무덤성당 내에서의 작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무덤성당을 가게 되신다면 정교회 수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낮보다는 훨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머물며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루살렘을 순례하실 때에는 구도시 안이나 구도시 가까이에 머무르시기를 적극 권장하는데, 그 이유가 매일 새벽에 무덤성당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전 6시 30분 (서머타임 때는 7시 30분)에 예수님 무덤 앞에서 파이프오르간 연주와 프란치스코회 신부님들로 이루어진 성가대가 창미사 (Missa Cantata)를 드리는데 가톨릭 신자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골고타에서 봉헌됩니다. 예수님 무덤 위에 있는 돔 위 하

늘로 아름다운 기도 노래가 끝없이 올라가며 제 마음 깊은 곳 구석구석까지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 은총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성당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례에 참여한 후 성당바깥에 나오면 밝아오는 하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기쁨에 피곤한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은 미소가 보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도 조금씩 물러나고 있으니 그 곳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해볼까 생각해봅니다. ☺

정석의 이 도시(4) 리투아니아의 네 도시 이야기

트라카이와 카우나스, 성모 발현지 실루바와 샤울레이 십자가 언덕

정석 예로니모_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발트해에 나란히 면해있는 세 나라 발트 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도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리투아니아에는 수도 빌뉴스 외에도 아주 흥미로운 역사와 이야기를 지닌 도시들이 많다. 호수와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도시 ‘트라카이’를 비롯해 리투아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리투아니아의 심장으로 불리는 ‘카우나스’, 유럽 최초의 성모 발현지 ‘실루바’, 수백 년 이어진 박해로 목숨을 잃은 신자들을 기리며 세운 십자가들이 언덕을 뒤덮은 ‘샤울레이’ 십자가의 언덕까지 성지순례에도 잘 어울리는 도시들이 리투아니아에 많다.

‘트라카이’는 수도 빌뉴스 서쪽 28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도시로 한때는 리투아니아의 수도였다. 위성사진에서 트라카이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호수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고, 갈베호 한 가운데 위치한 섬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딕양식의 성이 있는데 이를 섬성(island castle)이라 부른다. 섬성의 아래쪽 반도에도 성이 있는데 이곳은 반도성(peninsula castle)이라 부른다. 14세기 후반에 성을 쌓기 시작해 1410년에 완공했다. 수도를 빌뉴스로 옮긴 뒤 파괴되고 방치되었던 성을 1970년대부터 오랜 노력 끝에



트라카이성

복원해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다. 트라카이성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고, 배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트라카이성을 감상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키비나스라고 불리는 만두를 안주로 시원한 생맥주까지 한 잔 곁들인다면 최고의 낭만이 될 것이다.

‘카우나스’는 리투아니아에서 두 번째 큰 도시로 인구는 40만 명 정도라고 한다. 수도 빌뉴스를 적에게 빼앗겼던 기간 동안 임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다. 네리스 강과 네무나스 강이 만나는 삼각주 땅에 아름다운 카우나스성이 있고, 가까이에 카우나스 시청과 광장이 있다. 광장 주위에 카우나스 대성당과 페르쿠나스 하우스가 있다. 2018년 여름 이곳을 방문했을 때 마침 주일이어서 카우나스 대성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주일미사를 봉헌한 뒤 대천사 성미카엘성당 앞으로 쪽 뻗은 1.6킬로미터 자유로를 걸었다.

카우나스는 자유와 혁명의 도시로도 불린다. 1972년 5월 14일, 시를 쓰고





카우나스 시청과 프란치스코성당



자유로와 대천사 성미카엘성당



성미카엘성당의 삼위일체상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던 19세 청년 노동자 로마스 칼란타가 이곳 자유로에서 자유와 혁명을 외치며 분신을 했고, 그의 죽음을 계기로 거센 저항이 이어져 소비에트연방에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비틀즈와 장발과 록음악 등 자유로운 문화예술의 숨통이 터졌다고 한다. 로마스 칼란타의 분신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로부터 2년 전 1970년 11월 13일 대한민국 평화시장에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분신했던 청년 전태일이 떠올랐다.

키가 큰 두 줄 나무들이 숲을 이루듯 늘어선 자유로는 여러 번 이름이 바뀌는 수난을 겪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 식민지 시절 처음 이 길이 만들어졌을 땐 당시 러시아 황제 이름을 따서 니콜라스 거리로 불리었고, 1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이 점령했을 땐 카이저 빌헬름 거리로 불렸다. 1919년 리투아니아가 독립했을 때 자유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소비에트 연방 시절엔 다른 연방국가들처럼 스탈린 거리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61년에

다시 자유로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자유로가 끝나는 곳에 대천사 성미카엘성당이 웅장한 모습으로 서있다. 성당 안에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삼위일체상이 있는데, 셋이면서 하나인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때 발트 3국 여행을 함께 하셨던 백승치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전날 강론 말씀이 떠올랐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 셋이 하나로 통합되고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특히 자기 사랑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면 이웃 사랑도 하느님 사랑도 부질없습니다. 신앙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용서에 무척 빠르고 화내는 데는 아주 느린 하느님 사랑을 느껴보세요. 순례도 결국은 자신의 발견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발트 3국 순례여행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발트 3국 여행 셋째 날, 성모 발현지 ‘실루바’를 찾아갔다. 유럽의 성모 발현지는 아주 많다. 프랑스 루르드(1858년), 포르투갈 파티마(1917년), 벨기에 반뇌(1933년)가 유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발현지인데, **유럽 최초의 성모 발현지**가 리투아니아의 실루바(1608년)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리투아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늦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나라로 1387년 요가일라 국왕 때였다. 리투아니아에 그리스도 신앙을 널리 전파한 사람은 비타우타스 대공작으로 1457년 실루바에 성당을 지은 뒤 가톨릭교회에 기증했고, 로마에서 가져온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그림을 성당 제대 한가운데 걸어놓았다. 1532년 종교개혁 열풍이 불 때 실루바의 통치자들도 칼빈주의자로 개종한 뒤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며 개종을 강요하였다. 실루바 성당 주임신부였던 올루브카 신부는 성모 마리아 그림과 미사 도구와 비타우타스 대공작이 가톨릭교회에 기증한 문서 등을 철재 상자에 넣어 땅속 깊이 묻었고, 1569년 실루바 성당은 폐쇄되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가톨릭 신자들은 법적소송을 통해 성당을 되찾고자 했지만 문서가 담긴 상자를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1608년 실루바 마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앞에 성모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모습을 드러냈다. 바위 위에 파란색과 흰색 옷을 입은 성모님은 눈물을 흘린 채 서있었다고 한다. 목동들은 집에 돌아와 목격한 일들을 부모와 이웃에게 전했고, 성모 발현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다. 개신교 목사는 목동들이 성모님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위 주변에 마을 주민들을 모이게 한 뒤 여전히 로마의 미신을 믿는다며 야단을 쳤고, 성모 발현은 거짓이고 사탄의 소행이라고 경고했다. 바로 그 순간 처음 발현했던 바위 위에 아이를 안고 있는 성모님이 두 번째 모습을 드러내셨고, 며칠 뒤 문서를 넣어둔 상자가 발견되어 1622년 실루바 성당은 다시 가톨릭교회 소유로 되찾게 되었다. 1775



실루바 옛 성당 성모자상



실루바 새 성당과 성모상

년 교황 비오 6세는 성모 발현을 공식 인정했고, 1993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이곳을 순례했다.

실루바 성모 발현지에는 두 곳에 성당이 세워져 있다. 붉은 벽돌로 지은 옛 성당에는 로마에서 가져온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림이 걸려있고, 건축가 안티나스 비볼스키스가 설계하여 1924년 9월 8일 성모 성탄 축일에 봉헌한 새 성전이 옛 성당 건너편에 서있다. 흰색 외관의 새 성당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성모경당으로 불리고 매년 수십만 순례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성모 발현지마다 우리에게 전하는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서로 다른데, 실루바의 성모님 메시지는 “**당대의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였다고 한다. 무작정 남들 따라가지 말고, 어느 길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함을 강조한 메시지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다.



샤울레이 십자가의 언덕



샤울레이 십자가의 언덕에 봉헌한 십자가

리투아니아의 가장 슬픈 언덕, 가슴 먹먹한 곳 ‘샤울레이’ 십자가의 언덕을 소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한다. 샤울레이는 실루바 북쪽 12킬로미터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가톨릭 신앙을 지키다가 죽거나 멀리 유배당한 이들을 기리는 수만 개의 십자가가 언덕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소비에트 연방 시기엔 소련군이 불도저로 밀어버린 적도 있다고 한다. 낮에 십자가를 없애면 밤에 다시 십자가들이 세워졌고,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의 십자가까지 더해져 장엄한 십자가의 언덕을 이루고 있다. 1990년 3월 11일 리투아니아가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뒤 수많은 리투아니아인들이 독립을 지지하는 뜻으로 이곳을 순례하였고, 1993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이곳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십자가의 언덕은 리투아니아의 중요한 순례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리투아니아는 고생 많았던 나라, 슬픈 역사를 지닌 나라여서 더욱 애뜻하다. 유럽의 강국들 틈새에서 술한 침략을 당했고, 나라의 말과 글을 뺏기

고 신앙까지 박해받았던 때가 많았다.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끊어준 독일을 반겼지만, 독일 지배 하에서 22만 명이 학살당했다. 다시 지배자로 등장한 소비에트 연방 치하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시베리아 유배지로 끌려갔다. 같은 시련의 역사를 겪은 우리와 공감대가 많은 나라여서 왠지 짠하고 정이 더욱 가는 나라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언덕을 천천히 걸었던 기억이 난다. 수많은 십자가들 하나하나에 눈길을 주며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부활을 빌었다. 사람은 누구나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십자가의 언덕에 우리 가족들 여섯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은 작은 십자가를 봉헌했었는데 다시 가볼 기회가 오면 찾아보고 싶다.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애통하게 세상을 떠난 158명 희생자를 위해 다시 158개의 십자가를 멀리 샤울레이 십자가 언덕을 향해 봉헌한다.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그리스도께 봉헌된 삶을 선택한 성녀들:
아가타, 루치아, 아녜스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교 탄압 정책으로 그리스도교인들을 약 250년에 걸쳐 박해하고 탄압했는데, 긴 세월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다. 박해시대의 순교자 중에 이미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쳐 정결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한 순교 성녀들이 있다.



수르바란, <성녀 아가타>, 1630-33,
몽펠리에 파브르 박물관, 프랑스



수르바란, <성녀 루치아>, 1636,
샤르트르 미술관, 프랑스



수르바란, <성녀 아녜스>, 1635년경,
세비아 미술관, 스페인

착하고 어진 성녀 아가타

성녀 아가타(St. Agatha, 3세기경)는 13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황금전설』에 따르면, “고귀한 귀족 태생으로 아름다운 육체를 지닌” 그녀는 시칠리아섬의 카타니아에서 살았다. 당시 로마 황제 데키우스가 그리스도교를 탄압했던 시기로(240~251년), 수많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탄압과 핍박을 받으며 순교했다. 아가타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착하고 어질다’라는 뜻을 가진다. 그녀는 이름만큼이나 선하며 아름다웠다. 이교도인인 시칠리아의 총독 퀸티아노는 아가타의 아름다움에 반해 청혼했으나, 아가타는 이미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쳐 일생토록 정결을 지키며 살기로 서원하였기에 총독의 청혼을 거절했다. 몹시 화가 난 퀸티아노는 아가타를 매음굴로 보내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하나, 그녀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때 성녀는 하느님께 “저는 주님의 양이니, 제 모든 것을 차지하시고, 제가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아멘” 하며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했다. 결국, 퀸티아노는 성녀의 신앙과 정절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녀의 가슴을 도려내도록 명령했다. 이에 성녀는 “내 육체는 도려낼지라도 내 영혼을 도려낼 수 없을 것이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로 많은 화가는 성녀 아가타의

모습을 그녀의 가슴을 도려내는 장면이나 도려낸 가슴을 그녀가 쟁반에 담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곤 한다. 베네치아 화가 **잠바티스타 티에폴로**(Giambattista Tiepolo, 1696-1770)의 <성녀 아가타의 순교> 작품에서도 성녀의 모습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으나, 그녀의 가슴은 이미 고문으로 도려내져 그림 왼쪽 아래에 놓여있다. 하지만 성녀의 모습은 고문의 고통보다는 그녀의 얼굴과 하늘을 향한 두 손의 동작에서, 그리스도에게 봉헌된 그녀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이토록 끔찍한 고문을 받은 아가타는 감옥으로 끌려갔으며, 아무런 치료를 취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가슴이 잘린 고통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환시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성 베드로를 보았고, 베드로가 치료해준 덕에 그녀의 가슴은 예전과 같았다. 그림에서처럼, 하늘에서 성 베드로와 천사가 내려오고 있다. 하느님께서 성 베드로에게 아가타를 보살피고 치료하실 것을 당부하신 것이다. 천사는 쟁반 위에 상처를 치료할 약을 들고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다. 성 베드로에게 상처를 치료받지만, 아가타는 마침내 사형을 선고받고, 석탄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고 순교했다.

“주님, 저의 창조주시여, 당신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언제나 보호해 주셨나이다. 당신은 세상의 사랑으로부터 저를 택하시고, 고통을

견딜 인내를 주셨습니다. 제 영혼을 받으소서”<성녀 아가타의 마지막 기도 중>

빛의 수호성인 성녀 루치아

화가 잠바티스타 티에폴로는 15세기에 건축된 베네치아의 코너 경당의 제단화로 성녀 루치아(St. Lucia, 4세기 초)를 주제로도 그림을 그렸다. 성녀가 순교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시는 장면이다. 전설에 따르면, 성녀는 칼에 목이 찢린 후 성체를 받고 순교했다고 전한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절정에 달한 시기에 그녀는 재판관에 끌려가 배교를 강요당했다. 물론 굴복할 루치아는 아니었다.

루치아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 말기에 시칠리아섬의 시라쿠사에서 신심이 깊은 신자였던 윤택한 귀족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부유한 귀족과 약혼시켰다. 그러나 루치아는 이미 하느님께 몸을 봉헌할 것을 결심한 상태였다.

루치아의 어머니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녀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성녀 아가타의 무덤에 가서 기도했는데, 어머니의 병이 말끔히 완쾌되었다. 이 일 이후 그녀는 어머니에게 오래전부터 죽을 때까지 동정을 지킬 것을 서원

했으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머니는 놀랐지만, 성녀의 요청을 승낙했다. 그후 성녀는 자신의 결혼 준비를 위해 마련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결혼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성녀의 약혼자는 몹시 분개하여 그녀를 시라쿠사의 재판관에게 고발했다. 재판관 앞에 끌려간 루치아는 온갖 고문을 받으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받았다. 그림에서 성녀 루치아는 일반적으로 접시에 자기 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티에폴로의 작품에서도 화면 가장 아랫부분에 피가 묻은 칼과 그녀의 뺨혀진 눈이 접시에 놓여있다.

성녀의 이름은 “빛”을 의미하는 룩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또한 빛과 관련하여 그녀가 눈알이 뽑히는 형벌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녀의 뽑힌 눈알을 돌려주어 다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루치아는 시력을 잃거나 약한 사람들, 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다. 또한 재판관은 그녀를 매음굴로 보내 남자들에게 몸을 탐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루치아가 하늘을 우러러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였는데, 기이하게도 그녀의 육체는 갑자기 반석 같이 무거워져서 힘센 장정 5~6명이 밀고 끌어도 꿈쩍하지 안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들을 매달아 끌어 보았으나 전혀 움직이지 않



티에폴로, <성녀 아가타의 순교>, 1737년, 성 안토니오 성당, 파도바, 이탈리아



티에폴로, <성녀 루치아의 영성체>, 1748-50년, 산티 아포스텔리 성당, 베네치아

았다. 그래서 그녀를 장작더미에 태우려 했으나 성녀의 몸이 타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침내 재판관은 형리를 시켜 루치아의 목을 베도록 했다. 그녀는 목이 베어진 후에도 오래 생명이 유지되어 성체를 모실 수 있었다. 이에 루치아는 순교의 종려나무 가지나 순교할 때 사용된 칼이나 단도를 지닌 모습도 볼 수 있다. 또한 그녀를 움직이지 못했던 소들도 함께 그려지기도 한다.

티에폴로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 루치아가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시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녀의 모습은 모진 고문과 칼로 목이 베인 순간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고대하는 표정이다. 루치아의 얼굴

과 두 손을 가슴에 얹은 동작에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봉헌된 그녀의 삶과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어둠에서부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암흑을 빛 속으로 끌어내시는 분”(욥 13, 22)

순결의 수호성인 성녀 아녜스

성녀 아녜스(St. Agnes)는 로마의 귀족 출신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순결한 생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께 자신을 봉헌하기를 결심한다. 뛰어난 미모를 지닌 그녀에게 많은 젊은이가 관심을 보이며 청혼하나, 그녀는 모두 거절한다.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때, 아녜스는 우상의 신들 앞에서 제사 지낼 것을 강요받고 거부하자, 집정관이 베스타 신전의 정녀(貞女)가 되라고 명령한다.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기록에 의하면, 아녜스는 “성호를 긋는 것 외에 절대로 그녀의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화가 난 집정관은 그녀를 발가벗겨 매음굴로 보낸다. 그러나 그녀의 긴 머리가 빨리 자라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녀의 머리카락이 온몸을 감싸며 보호했다고 한다. 아녜스가 매음굴에 도착하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빛나는 하얀 천으로 그녀의 몸을 감싸준다.

스페인 바로크 화가 리베라(Jusepe de Rib-

era, 1591~1652)는 명암대조와 자연주의적 치밀한 묘사로 성녀 아녜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출신이지만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리베라는 자연스럽게 로마미술을 직접 접할 기회를 가지며, 카라바조의 명암대조와 사실주의적 묘사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회화적 요소는 리베라가 그린 성인·성녀의 참회 하거나 박해받는 모습,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모습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목상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왼쪽 위에 날개 달린 천사가 흰 천을 내려주어 아녜스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 꿇은 그녀의 뒷배경은 단조로우나, 그녀와 명암대조를 이루는 환한 금빛으로 성스러운 하늘의 은총이 가득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빛과 어둠의 대조는 하늘을 향한 그녀의 관조적 시선과 함께 이 공간을 매음굴이 아닌 기도 장소로 만들고 있다.

아녜스는 “그리스도는 나의 배우자”라고 대답하며, 그녀 가까이 접근하는 남자들에게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304년경에 13살 나이로 참수형을 선고받고 순교한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성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이들보다도 더 기쁘게 사형 집행장으로 갔다.”고 전한다.

그리스 어원을 지닌 아녜스의 뜻은 ‘순수한, 순결한’으로, 실제로 아녜스는 정결한 몸을 하



리베라, <천사가 준 망토를 덮고 있는 성녀 아녜스>,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독일

느낌에 봉헌한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정결과 봉헌의 의미는 많은 화가가 성녀 아녜스를 백합꽃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그리곤 한다. 아녜스(Agnes)란 이름이 ‘어린 양’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냐스(Agnus)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양은 젊음과 순수함,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희생을 상징한다.

“당신들은 칼로 나의 몸을 피로 물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께 바친 나를 결코 더럽게 할 수는 없다.”

-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동정에 관하여] 중 -

[가톨릭직장인] 후원금 안내

-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후원금 보내주실 때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직장인] 모임교재, 편집팀 봉사자 모집

[가톨릭직장인] 월간지 발행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편집팀: 월간지 기획 및 편집, 교정
- 모임교재: 월보 속 "신앙의 삶" 나눔 원고 기획
- 문의: 02-727-2078

직장인들을 위한 미사 소개

바쁜 일상 안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풍성한 미사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 명동 주변 직장인 대상

- 장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일시: 매주 금요일 12시 15분

◎ 중림동 주변 직장인 대상

- 장소: 중림동 약현 성당
- 일시: 매월 첫째 목요일 12시 10분

직장공동체 송년감사 미사

한해를 마감하면서 모든 직장교우회원들과 함께 송년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12. 8(목), 19:30
- 장 소 : 명동대성당 패밀리아채플
- 주 레 : 노우식 스테파노 신부 외 직장사목팀 사제단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믿습니다.

힘든 상황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기꺼이 따스한 한 끼를 드릴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
선함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함께 해주세요.

명동밥집 후원하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mdbj.or.kr 전화 02-774-3488

후원계좌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신청 :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 (mdbj.or.kr)





Bishop's Mitre

The mitre is a type of headgear now known as the traditional, ceremonial headdress of bishops and certain abbots in traditional Christianity.

In the Catholic Church, ecclesial law gives the right to use the mitre and other pontifical insignia (crosier, pectoral cross, and ring) to bishops, abbots, cardinals, and those canonically equivalent to diocesan bishops who do not receive episcopal ordination.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